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230)]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64)

동서남북에 새끼오름 끼안은 靈山

입력 : 2005. 01.28. 00:00:00



▲산록도로를 달리다 보면 영아리오름에서 한라산 정상부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사진왼쪽). 사진 오른쪽은 영아리오름의 동쪽 능선, 탐사단원들이 굽부리를 따라 오름 정상인 북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qmkang@hallailbo.co.kr

마보기·영아리오름

지난 22일 안덕면 상천리 소재 영아리오름을 찾았다. 상천 쪽의 모록밭과 광평 너븐드르를 굽어보는 오름으로, 오름의 동서남북에는 어오름, 하늬보기, 마보기, 이돈이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마치 한라산 정상부가 주위의 기생화산을 거느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오름 남쪽의 산록도로를 지나다 보면 서귀포에서 바라본 한라산 정상 모습이 영아리오름에서 나타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핑크스골프장 입구 서쪽 500미터 지점에서 오름오르기를 시작했다. 울타리만 남고 비어있는 목장을 지나 영아리오름 남쪽에 위치한 나즈막한 마보기오름에 도착했다. 무성하게 자란 띠(새, 초가 지붕 재료)가 오름 전체를 노랗게 덮고 있었고, 금방 정상에 오르니, 주변 시야가 탁트여 있어 관산하기에 적합한 오름이었다. 오름 동남쪽에는 핑크스골프장, 상천의 형제오름인 병악과 괴오름을 중심으로 안덕, 대정지역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곳에서 삼나무 숲이 조성돼 있는 영아리오름을 올라다보니 마치 한라산 산체를 그대로 축소시킨 형상을 하고 있다. 영아리오름을 오르기란 여간 쉽지 않았다. 핑크스골프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해도 오름 기슭은 마을공동목장이었다. 그런데 방목이 사라지고, 사람 왕래가 끊긴 사이 자라난 짙레나무, 청미래덩굴, 가시나무, 쥐똥나무 등이 탐사팀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무수한 가시덩굴에 괴롭힘을 당하자 정상에 도착하기 전부터 앞으로 이 오름에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푸념들이 쏟아졌다.

가시밭과 삼나무 숲 중간중간에는 잣성이 이어져 있다. 가파른 능선 아래에 도착하니 마소에게 물을 먹이던 습지가 나타났다. 5백평 남짓한 크기로 과거 공동목장에서 방목됐던 마소들에게는 소중한 수처(水處)였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골풀, 마디풀 등 습지식물이 번식돼 있다.

색달천 경계로 서쪽으로 왕이매, 원물오름까지는 조선시대 국영목장 10소장 가운데 7소장에 속했다. 이 7소장에는 영아리 오름 초원과 상천의 모록밭과 광평 너븐드르 일대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 중 고지대의 상잣성 위치에 있는 영아리 오름 일대는 마소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이 습지 바로 위 영아리의 동남사면 능선은 온통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바위 무더기로 된 높이 30여m의 봉우리를 힘겹게 올랐다. 용암이 집중적으로 분출됐던 지점으로 추정된다. 오름의 남봉으로, 과거급제한 강씨의 묘자리가 쓰여져 있어 눈길을 끈다.

영아리오름은 서쪽으로 개구된 말굽형 분화구였다. 송이로 뒤덮인 동쪽 능선에는 초원이, 북봉 능선에는 삼나무와 소나무 숲이 발달해 있는데 오름 정상에 알리는 삼각점이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 영아리의 '아리'는 다름 아닌 '산'이라는 뜻의 만주어라고 한다. 따라서 영아리는 영산(靈山),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의 이름이 된다.

꽤 추운 날인데도 눈 대신에 가랑비가 옷을 적신다. 오름 동쪽의 어오름, 북봉 너머 나인브리 지 골프장 한 가운데 있는 이돈이, 서쪽의 하늬보기는 다음 탐사로 미루고 서둘러 가시밭을 헤쳐 하산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영아리오름에서 본 노루가 걱정

영아리오름을 오르기 전에 마보기 정상에서 본 제주의 남서쪽 광야는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풍광을 지녔다. 마라도, 산방산, 왕이매, 금오름, 녹하지악, 멀리 당산봉과 녹남봉까지 한 눈에 들어왔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곳이기에 자연을 이기려는 사람들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발아래 골프장에서 노루 한 마리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마보기 남쪽으로 골프장, 산록도로(1115번),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야생동물의 터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이 골프장 한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하면서 노루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최근 한라산 주요 도로에서 매년 30여 마리의 노루가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오소리, 족제비, 누룩뱀, 큰소쩍새 등의 희생도 뒤따르고 있다. 제주도의 골프장과 도로확보율은 전국에서 면적 대비 최고를 자랑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보장하는 생태통로는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고작 계곡의 지류를 통한 다리형 통로와 배수로뿐이다. 노루가 골

프장과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시설이 보강되어야 하며 특히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야생동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이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장과 도로건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범으로 오해받기 이전에 제주의 생명 자원들을 살려내는데 가시적인 노력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은 혜택을 조금씩이 아닌 크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것이 곧 무너져 가는 제주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경제적 논리를 뒤로 하고 제주땅에서 노루, 꽃자왈, 오름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생태적 환경의식을 가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아리 분화구 내에서 살아가는 노루들이 우리를 보고 뿔 듯이 반길 것이 아닌가.

<김완병 탐사위원(제주자연사박물관/조류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